

저자 : 상계동의 K3G

운전은 자동차라는 기계를 사용하여 자신이 가고자하는목적지까지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하기위한 ‘수단’이므로 ‘수단’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면 좋지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이하 경어 생략!!경어 생략!!)

그럼 수단 이외의 ‘목적’이란 무엇인지를 잘 살펴 보고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은 고쳐 나감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하며 밝은 운전문화를영위할수 있겠다는 것이 이글을 쓰는 사람의 바램이며 간절한 소원 이기도 하다.거두절미하고 차를 몰고 주행을 하다 보면 여기가 자동차 경기장인지,운전 연습장인지 구분이 안되는 경우를 왕왕 목격하게 된다.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많이 갖고 있어서 인지 마치 곡예를 하듯 요리조리 틈만 나면 숨가쁘게 끼어들기와 무리한 추월행위를 여러번 당하곤하는데 참으로 등골이 오싹한 기분이 드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다.실제로 약 두어달 전에 동부간선로를 따라 용산을 향하는데,20대 중반 정도의 청년이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중횡무진 누비고 다니며 마치 자신의 운전 솜씨를 자랑이라도 하려는듯,아니 전쟁이라도 하려는 듯 으르렁거리며 여러 운전자들을 열받게 하더니 1KM 쯤을 가보니 추돌 사고를 내서는 쥐뿔 씹은 낫짝을 하고 서 있었다.한마디로 기본적인 예절의식이 없는 인간 이기에 그런 형태의 운전질을 해서 여러 사람들의 기분을 여지없이 망가뜨리는 것 이다.사고 지점에서 속도를 줄인 차량들이 그 미친놈에게 한마디씩 추돌시킨 말이 뭐게?-----개새끼 까불더니 잘됐다-----였다.나? 물론 나는 더 심한 욕을 해줬지-----너 차팔아도 모자라겠다 임마!!!!

쉽게 말하면 이런놈들이 차를 몰고 다니는 행위는 “정신병이 있는 사람에게 실탄이 장전된 총기를 들려 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운전들 양전하게 해용~~~~~

제안____운전 하기전의 마음 자세

운전을 하기전에 다음과 같이 해보라.사고방지에 대단히 도움이된다.

- 1.운전석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매고 심호흡을 한후 30초 정도눈을 감고 자신의 자동차와 호흡을 맞춘다는 생각을 하며 핸들을 어루 만진다.
- 2.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하라.어머니,아버지,아내나 연인 자식과 친구들 등등 ...내가 사고를 냈을 때 안타까워할 얼굴들을 말이다.종종 택시에 적힌 문구----아빠,오늘도 무사히----만약 택시 운전자의 귀여운 자녀가 직접 고사리 손으로 쓴 그러한 문구를 차량안에 부착 했다면,그 아버지의 운전 자세는 펍 부드러워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3.다음 세 가지를 주문처럼 외운다.

@ 나는 신호 위반 하지 않겠다.

@ 나는 횡단 보도를 침범하지 않겠다.

@ 나의 무모한 운전으로 남을 죽이지 않겠다.

@ 음주운전 불가는 기본이다.

생각해 보라.곡예운전을 하다가사고를 냈다면 그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참혹한 부상자나 피흘리는죽음이 자신의 나쁜 운전 버르장머리로인해 펼쳐진 현실이라면 그 얼마나 피하고 싶은 상황이겠는가말이다.

모든끝은 시작과 과정에서 기인 되어지는 것이다.당신이 아침에 위의 세가지를 가슴에서 우러 나오는 마음으로 외우고 출근을 해보라. 여유를 타고 흐르는 느긋함이 어느새 방어 운전의 개념이 되고 양보가 되어 성숙한 자신의 운전자세에 뿌듯함까지 얻을수 있는 것은 물론 하루의 일과는 만사 OK 바리 !!!

초보 운전자를 위한 도로 주행방법

1.교외 장거리 주행시는 반드시 2차선이나 3차선으로 주행하라. 고속도로뿐이 아니고 일반 국도에서도 초보자는 1차선을 추월선으로만 생각 하는 자세를 가지기를 권한다.“초보운전”꼬리표도 달지 않고 뻥뻥하게 1차선을 점령하여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몇백미터또는 그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며 사색운전을 하는 작자들----이런자들은 “초보운전”피해의 식을 버려야 하며,앞차와의 속도 리듬을 못맞추겠으면 당연히 차선을 비워 주고 안전한 차선으로 주행해야 할것이다.왜냐하면 주행에는 리듬이 있는데 당신의 ‘발발기는’운전이 전체 도로의 리듬을 다 깨고있으며,그것은 스트레스가 되어 그 도로를 주행하는 숙련된 운전자들을 난폭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초보자는 반드시“초보운전”이라는

규격된 표시를 달기를 권한다.절대 숙련된 운전자는 초보자를 곤경에 빠뜨리지않으며 도움을 청하면 언제라도 응할 준비가 되어있다.또한 당신도 머지않아 숙련된 운전자가 될것이기 때문이다.

“초보운전 아줌마가 차를 끌고 나왔다가 좌회전 차선의 맨 앞에서 신호대기를 받게 되었다.신호가 바뀌었는데 당황하여 출발을 못하자 뒷차들이 난리를 치며 발광..그러자 교통 경찰이 두벅두벅 다가와서 그 여자에게 하는 말 ”아주머니,신호등 색깔이 마음에 안드십니까?“

2.눈이 내리는 도로나,적설이 있는 도로의 주행은 대단한 주의가 필요하며 초보자들이 사고를 많이 내는 상황에 노출된 것이다.갑자기 주행중 눈을 만났을때는 체인을 동력이 있는 바퀴에 장착하는 것이 제일 좋으나 그럴 상황이 못될때는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하라.이르테면 평상시에 시속45KM에서 3단 기어를 사용했다면 기어를 2단으로 변속하여 보라.브레이크페달을 밟은것과 같은 제동력이 생겨 정지가 용이 하게된다.눈쌓인 도로에서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99% 사고가 난다고보고 페달밟은 이후를 생각하여야 할것이다.그러니 평소 3단의 기어변속이 적당한 속도에서는 2단으로 주행,2단의 주행속도는 1단으로 주행하면 속도도 많이 안나고 안전하게 주행할수 있으며 2단에서 브레이크페달을 밟을 상황이면 재빨리 1단으로 기아변속을하여 속도를 줄인후 상황에 대처한다.그러니 평소에도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하는 방법을 숙달하여야 위험한 악천후에도 안전한 운전을 할수있다.다시 한 번 강조 하지만 적설이 있는곳에서 속도를 줄이지않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은 뒤에따라오던 차와 정면 키스의 가능성이 99.999%임을 명심 할것!!!!

자동변속차량은 1단이나 LOW KIA를 사용하면 같은 효과를 내수있슴.

3.횡단 보도에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횡단 보도앞의 차량정지선은 절대 밟으면 안된다.더러는 그까짓선좀 밟으면 어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내 친지중에 한사람이 겪은 일을 듣고나며 고개가 끄덕여 질 것이다.

몇 년전 그사람은 횡단보도를 밟고 정차하여 사람들이 건너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밤비가 오고 있었다 한다. 한 여성이 마지막으로 건너가고 있는 와중에 뒤에서 정차 하려던 차가 빗길에 미끌어지며 그 사람의 차량 뒷꽂무니를 딛따 들이 받았고 길을 건너던 여자는 자신의 차량에 받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그일로 그는 많은 고초를 겪었는데 그 사람이 횡단보도 정지선을 충실히 지켰다면 뒷차에게만 책임이 있을일이 아닌가? 그 사람은 요즘도 비오는 날에 술을 한잔 먹으면 자신의 차에 들이 받혀 죽던 그 여자의 망령에 진저리를 치곤한다.---이상 납양특집---

4.음주운전과 신호 위반,차선위반--무조건 하지않아야함이 운전자의 지상 명령이다.나는 불명예스럽게도 89년 11월 7일 단순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백일을 선고받아 면허증을 압수당한일이 있으니 제목의“10년 무사고”

운운은 사실 언어 도단일 것이다.너무 치욕스러워 날짜 까지 기억한다. 실토하자면 89년 11월 이전에는 음주운전이 죄라는 의식이 희박하여 거의 매일을 방배동에서 작신 마시고 과천으로 차를 몰고 퇴근하곤 했었다.어느날은 위험하다고 느낀것도 한두번이 아니었는데 난 운좋게도 그놈의 음주운전 버릇을 백지장 뒤집듯 버릴 행운(?)을 잡은것이다.그날은 11개월간 금주를 하던 끝에 거래 관계로 만난 사람과 술을 한잔 마시게 되었는데 과음을 했었고 퇴근후에 디자인실 회식을 방배동 모 주점에서

하게된 관계로 자연스럽게 관악 경찰서 근처의 술집에서 나와 차에시동을 걸고 출발했다.기실 그날은 150M 앞의 주차장에 차를 맡기고 택시를 이용하려했는데 주차장에서 불과 20M 쯤 못미친곳의 횡단보도앞에 신호대기를 받는데 트럭한대가 내 차를 가로 막으면서 욕설을 해댔다.옥신각신하다가 시계도 박살 실장을 기다리는 디자인실 회식도 박살,모든 것이 깨박살.....술취한김에 보호자 대라는 것을 안대고 뺏대다가 경찰서보호실에서 머리털나고 하룻밤_죄질 나쁜사람들과___꼴까닥 하면서 악질죄수 취급당하고,벌금 20만원(당시)에 상으로 면허정지 100일---

이런 연후부터 나의 음주운전 습관은 싸~~~악!!!사라지고 한잔을 마셔도 자동차 열쇠 보관,반잔을 마셔도 열쇠 보관!!!!!!!!!!!!!!!!!!!!!!!!!!!!!!

그날은 당직 형사가 경찰다운 경찰이라 간접적으로나마 내죄가 얼마나 불특정 다수의 인명에 치명적 피해를 줄수있느냐를 뺏속까지 느낀 유익했던 고마운 밤으로 기억 하고있다.그전에 그렇게 떡이되도록 술을 마시고 운전했던 것을 생각 하면 지금은 오싹한 마음과 감사함이 느껴진다.

그 트럭 운전기사 만나면 소주나 한잔 사주고 싶을 정도.....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양체들이 수도 없이 많다.남들은 착실하게 직진 차선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다.안될 일이다.한번은 용산구청에서 좌회전을 하다보니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게되었다.로타리를 건너면 바로 교통 순경이 서있는데도 나는 나의 상황이 이해될걸로생각 하였는데 단속을 당했고 나는 항의 했다.“구청에서 나오다 보니 직진 차선으로 진입이 불가해서 그랬다!!멍멍멍“ 허 참 그랬더니 그 경찰은 너무나 멋진 말을 준비 하고 있었고 나는 7,000원 짜리 딱지를 받았다 “상황이 않된다면 좌회전을 하셨다가 돌아 나오면 됩니다”였다 깨갱!!! 음주운전을 한차례 하다 보면 버릇이 된다.이건 절대 버릇 되면 않된다!

보름전에 고향 친구의 집엘 간일이 있는데 옆집에서 우지끈 하는 소리가 들렸다.일대가 상가라 별일 아닌줄 알았더니 곧드레 만드레 된 녀석이 호프집으로 돌진했다가,어 이게 아닌데 하고 후진하다가 새 고급 승용차 우지끈,피를 질질 흘리며 나온 운전자는 20대 후반.피를 입에서 질질 흘리며 걸음도 잘 못걸는 녀석의 입에서 나온말은 가관 “X팔 전부 물어 주면되잖아!”인석아,뚫린입이라고....쫓쫓쫓.....

두서 없는 글을 주절 주절 늘어 놓았는데 초보운전자 여러분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글을 씁습니다.제가 요즘 장거리 주행을 많이 하다 보니 느낀점이 여럿 있어서 저의 경험 등을 정리 하였는데 예절있는 운전습관을 신세대 아니 엑스세대 부터라도 시작 해 준다면 한 10년 후에는 여러분 들이 영망인 운전문화 정착의 기수로써 그 혜택을 누릴수 있겠지요.